

일생성불초(一生成佛抄)

(WND(영문 어서) 3-4쪽, 어서 전집 383쪽)

대저 무시(無始)의 생사(生死)를 멈추고 이번(今)에 결정(決定)코 무상보리(無上菩提)를 증득(證得)하려고 생각한다면 모름지기 중생본유(衆生本有)의 묘리(妙理)를 관(觀)할자이다. 중생본유(衆生本有)의 묘리(妙理)란 묘호렌게교(妙法蓮華經) 이것이나. 그러므로 묘호렌게교(妙法蓮華經)라고 봉창한다면 중생본유(衆生本有)의 묘리(妙理)를 관(觀)하는 것으로 되니라. 문리(文理)가 진정한 경왕(經王)이므로 문자즉실상(文字卽實相)이고 실상즉묘법(實相卽妙法)이나, 오직 구극(究極)은 일심법계(一心法界)의 취지를 살해 나타냄을 묘법(妙法)이라고 이름하는 고로 이 경(經)을 제불(諸佛)의 지혜(智慧)라고 하느니라. 일심법계(一心法界)의 취지란 십계삼천(十界三千)의 의정색심(依正色心), 비정초목(非情草木), 허공찰토(虛空刹土) 어느것도 제외하지 않고 먼지도 남김없이 일념(一念)의 마음이다 포함하고 이 일념(一念)의 마음이 법계(法界)에 편만함을 가리켜서 만법(萬法)이라고 하느니라. 이 이를 각지함을 일심법계(一心法界)라고도 말하는 것이나. 단 묘호렌게교(妙法蓮華經)라고 부르며 수지(受持)한다 해도 만약 기심(己心)의 밖에 법(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혀 묘법(妙法)이 아니라 추법(추법)이나. 추법은 금경(今經)이 아니로다. 금경(今經)이 아니면 방편(方便)이며 권문(權門)이나. 방편권문(方便權門)의 교(敎)란다면 성불(成佛)의 직도(直道)가 아니고, 성불(成佛)의 직도(直道)가 아니면 다생광집(多生曠劫)의 수행(修行)을 거쳐도 성불(成佛)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생성불(一生成佛)은 이루기 어려우니라. 그러므로 묘호(妙法)라고 부르고 렌게(蓮華)라고 읽을 때에는 나의 일념(一念)을 가리켜서 묘호렌게교(妙法蓮華經)라고 이름한다고 깊이 신심(信心)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통들어서 일대팔만(一代八萬)의 성교(聖敎), 삼세사방(三世十方)의 제불보살(諸佛菩薩)도 나의 마음 밖에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말자이다. 그러므로 불교(佛敎)를 배운다고 할자라도 심성(心性)을 관하지 않는다면 결코 생사(生死)를 출리할 수 없느니라. 만약 심외(心外)에 도(道)를 구하여 만행만선(萬行萬善)을 수행함은 비유컨대 빈궁한 사람이 일야(日夜)로 이웃의 재보를 썰자라도 반전의 득분도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천태의 석중(釋尊)에는 만약 마음을 관하지 않는다면 중죄는 멀하지 않는다고 하고, 만약 마음을 관하지 않는다면 무량의 고행(苦行)으로 된다고 판정했느니라. 고로 이와 같은 사람을 불법(佛法)을 배우고 외도(外道)로 된다고 창피를 주었느니라. 이로써 지관(止觀)에는 수학불교(雖學佛敎), 환동외견(還同外見)이라 해석했느니라.

배경

이 어서는 1255년, 니치렌 대성인이 34세 때 쓰시어 도키조닌에게 주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는 대성인이 입종선언을 하신 1253년(당시 32세)으로부터 2년이 지난 후로, 막부의 거점인 가마쿠라에서 홍교를 시작한 무렵이었다. 대성인께서는 이 어서에서 묘호렌게교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고 있다.

이 무렵 시조강고, 이케가미 형제, 쿠도 요시타카 등 많은 제자들이 입산하였는데, 그 중 도키조닌이 1254년 가장 먼저 신심을 시작했다

고 알려져 있다.

지금의 지바 현인 시모우사 지방, 지바 가문의 호위무시였던 도키조닌은 학문의 소양도 있어 대성인으로부터 “관심의 본존초”, “법회취요초”, “사신오포초”와 같은 주요 어서를 비롯하여 수많은 어서를 받았다.

키 포인트

대성인께서는 이 어서에서 남묘호렌계교를 봉창하는 것은 중생본유의 묘리를 관하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시고 있다. 제목을 부르면 자신의 생명에 내재한 불성을 융현하고 생명을 정화함으로써 일생 성불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 이외에서 묘법을 구한다면 아무리 제목을 불러도 성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남묘호렌계교라고 봉창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공덕 선근으로 쌓이며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연마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시고 있다.

묘호렌계교가 기심의 법임을 시사하는 심의를 언급하신 후, 어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일생성불의 신심 남묘호렌계교 남묘호렌계교”라고 밝히시면서, 대성인 불법에서는 어디까지나 일생성불을 지향하는 신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단언하시고 있다. 불법은 우리가 올버튼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중생본유의 법을 상세히 설명해 준다. 남묘호렌계교를 자기 내면의 법이라 확신하고 열심히 제목을 불러나간다면 자신의 생명이 연마되어 반드시 일생성불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어서의 핵심이다.

남묘호렌계교는 처음부터 니치렌 불법의 핵심 가르침이었다. 대성인께서는 일생에 걸쳐 남묘호렌계교를 부르셨고, 말법시대에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위대한 묘법의 일본 및 세계 유포를 제자들에게 위탁하셨다. 대성인께서 불법의 궁극적인 가르침을 깨달으시고 그 정수인 남묘호렌계교의 정법을 설했으로써 널리 유포하신 것이다.

대성인께서 입종선언을 하시고 난 2년 후에 저술하신 아*일생성불초에는 남묘호렌계교의 의미가 명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서를 공부하여 대성인 불법에 대한 확신을 깊게 하고 제목의 공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성인께서 의도하신 대로 위대한 남묘호렌계교의 묘법을 신수하고 널리 유포해 나가는 단체는 오직 SGI뿐이라고 단언해 두고 있다.

강의

1) 생사의 고뇌를 극복

“대저 무시(無始)의 생사(生死) (生死)를 멈추고 이번에 결정(決定)코 무상보리(無上菩提)를 증득(證得)하려고 생각한다면 모름지기 중생본유(衆生本有)의 묘리(妙理)를 관(觀)할지이다. 중생본유(衆生本有)의 묘리(妙理)란 묘호렌계교(妙法蓮華經) 이것이니라. 그러므로 묘호렌계교(妙法蓮華經)라고 봉창한다면 중생본유(衆生本有)의 묘리(妙理)를 관(觀)하는 것으로 되니라.”

생사의 고뇌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인간 생명본유의 묘리를 깨달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묘호렌계교를 봉창해야 한다고 대성인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다.

“무시의 생사란 삶과 죽음의 끊임없는 반복을 말한다. 생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반복은 영원히 참을 수 없는 고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전통불교에서는 “생사”란 고뇌의 표현이라고 말한다.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는 그 고통이 다음 생에도 계속해서 영원히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참기 힘들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러한 생사의 반복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성인께서는 여기에서 “이번에 결정코 무상보리를 증득한다”라고 쓰시면서, 우리가 이제껏 살아왔던 수많은 과거세가 아니라 현재의 생(금생)을 특히 강조하시고 있다. “무상보리”란 우리가 생사의 고뇌를 극복할 수 있는 진리를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커다란 복운이다. 끝없는 고통의 반복인 생사에서 벗어나 부처로서 성불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금생

에서 이러한 위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중생본유의 묘리”를 깨달아야만 한다.

중생본유의 묘리

묘법은 모든 것을 움직이는 우주 본연의 법칙이다. 부처란 그 사실을 묘법에 존재하는 자신의 생명 깊숙히 깨달음으로써 성불한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사실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거나 명확하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묘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묘법이란 헤아릴 수 없이 심오한 법이다.

묘법은 우주를 지탱하고 모든 현상을 낳는 근원의 법칙이다. 불법에서 말하는 “법”이란 “유지하다” 또는 “지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달마”라는 산스크리트어의 번역이다.

사회의 법을 보면 사회를 돕는 법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질서나 상거래를 유지하는 법의 기능은 사회를 질서정연하게 이끌어가고도록 돕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법 이외에도 물이나 생물의 법칙처럼 생명과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을 지배하는 법칙도 있다. 이러한 모든 법을 생성시키는 것이 바로 묘법이다. 즉 모든 것을 도와주는 필수적인 법칙인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묘법”이라고 부른다.

남묘호렌계교의 중양에 있는 “묘호”란 묘법을 말한다. 묘법이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묘법이 우리의 생명에 존재하며 우리 생명을 지탱해 주고 있다. 대성인께서 “중생본유의 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묘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부처의 존극인 성불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끝없는 생사의 고뇌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우리는 묘법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성불을 이룰 수 없어. 부처는 그런 어려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성인께서는 이 구절에서, 누구나 자신의 평범한 생명 속에 내재한 묘리를 깨달아 금생에 생사의 고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대성인께서는 이 첫 구절에서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고위층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금생의 묘리를 말씀하시며 심오한 종교적 가르침의 위대함을 명시하시고 있다.

묘호렌계교의 의미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이 묘리가 묘호렌계교라는 이름으로 모든 생명 속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다고 대성인께서 밝히셨다는 점이다. 대성인께서는 우리가 묘법의 이름인 제목을 부르는 것이 이 묘리를 관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석존은 자신의 지혜로서 묘법을 깨닫고 제자들에게 똑같은 자혜를 얻을 수 있는 수행을 가르쳤다. 그러나 대성인께서는 묘법이 자신에게 갖추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남묘호렌계교를 부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다. 제목을 부르는 것은 그런 확신의 표현이며 우리 신심의 증거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한 삶을 살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의 존재가 필연적으로 이 법에 근거한다는 확신이기도 하다.

대성인께서는 “그러므로 묘호렌계교(妙法蓮華經)라고 봉창한다면 중생본유(衆生本有)의 묘리(妙理)를 관(觀)하는 것으로 되니라.”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제목을 부르는 것이 곧 묘리를 관한다는 뜻이다. 제목을 부르면 묘리를 관하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러한 본질적인 현실로 가는 길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대성인 불법의 위대함이 있다.

대성인 이전에는 묘법에 대한 비유 등을 통해 이를 암시하는 것에 그쳤을 뿐 직접적인 설명은 없었다. 또한 사람들의 구도심을 일으키기 위해 석존의 깨달음의 위대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대성인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제목을 부름으로써 자신에게 갖추어져 있는 묘법의 존재를 확신하여 이 묘리를 계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 묘리가 인간의 생명 안에 용솨음치게 되는 것이 바로 부처의 생명이다. 묘법의 힘은 무한하며 어떤 것에도 구속 받지 않고 인간이 가

진 다양한 재능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묘법은 인간 생명 속에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자혜와 용기, 인내심, 그리고 타인을 위한 자비로 표출된다. 불성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힘은 내부로부터湧출되는 것이다. 그러한 확신으로 제목을 부름으로써 이 묘리와 불계의 생명이 융현되는 것이다.

묘법의 힘을 방해하는 작용을 불법에서는 원품의 무명(fundamental darkness)이라고 하는데, 이는 생명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의혹과 무지를 가리킨다.

원품의 무명은 묘법을 본질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며, 그로 인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원품의 무명은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근원이다.

일단 묘법에 눈을 뜨게 되면 원품의 무명은 사라진다. 예를 들어보자. 묘법을 태양에 비유한다면 원품의 무명은 태양을 가리고 있는 구름과 같은 것이다. 어두운 구름이 사라지면 눈부신 태양이 천지를 밝게 비춘다. 우리가 원품의 무명을 벗어버리면 묘법의 힘이 즉시 작용을 시작하여 복운을 쌓고 인생의 가치를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기심에 내재된 묘법을 확신함으로써 삶에 나타나는 복운과 긍정적인 가치는 진흙탕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 혹은 렌게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묘호렌게교는 묘법을 수지 하는 부처의 생명인 것이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묘법의 당체이며 본래부터 불성을 가진 존재이라고는 해도 원품의 무명이라는 어둠의 그림자와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기심에 내재되어 있는 불성이 실제로 융현되지 않는다. 마치 미법의 주문을 외우듯 단순히 제목을 부른다고 우리 기심의 불성이 융현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묘호렌게교는 우주 본래의 법칙이기 때문에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위대함은 묘법의 이름을 부르는 본연의 수행에 있다. 그러나 불성을 융현시키기 위한 길을 굳건하게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 속 원품의 무명과의 투쟁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투쟁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신심이다.

대성인께서는 석존이 성불한 법화경을 깊이 통찰하신 후 자신의 생명에 내재한 묘호렌게교를 발견하셨고, 본인의 투쟁을 통해 묘법의 존재를 증명하셨다. 우리가 묘호렌게교를 끄집어 내기 위해서는 대성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남묘호렌게교를 봉창해야 한다. 제목 근본의 정신이아말로 원품의 무명과 싸워 이기는 것이며, 이것이 참된 신심의 자세이다. 그렇다면 대성인이 흥교하신 제목 혹은 남묘호렌게교가 “투쟁하는 제목”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원품의 무명은 의심, 불안, 고통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모두 신심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다. 대성인께서 종종 의심 없는 신심을 강조하신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신이라는 한 마디는 원품의 무명 혹은 무지를 이겨내고 맞서 싸우는 날카로운 칼이다.” (어의구전)라고도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심 혹은 확신의 “감”이다. 생명의 부정적인 작용에 도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원품의 무명을 타파하는 투쟁을 의미한다. 우리는 현재 광선유포를 방해하는 닛켄종과 투쟁하고 있다. 좀 더 깊은 관점에서 본다면 중문의 부정적 작용과의 투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품의 무명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칠 때마다 틀림없이 원품의 무명과의 도전에 맞서게 된다. 그 때 신심 - 절대적 행복경이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과 광선유포 실현을 위한 행동—을 잃게 되면 역경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다.

창제에는 신(信)의 제목과 행(行)의 제목, 두 가지가 있다. 신 또는 확신은 효과적인 태도로 제목을 부르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또 행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신심을 깊게 하기 위해 어본존을 향해 남묘호렌게교를 봉창하는 것은 지행이다.

지행을 지속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타인을 위한 자비가 촉발되어 타인에게 불법을 넓히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묘호렌게교의 멋진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다. 타인에게 불법을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화타의 모습이다.

창제의 핵심은 확신과 자신감을 개발하는 데 있다. 신행의 제목, 지행화타의 제목을 통해 확신을 갖고자 하는 내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중생본유의 묘라”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불성의 힘을 용현해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 나의 생명이 묘법의 당체

“단 묘호렌계교(妙法蓮華經)라고 부르며 수지(受持)한다 해도 만약 기심(己心)의 밖에 법(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혀 묘법(妙法)이 아니라 추법(추법)이다. 추법은 금경(金經)이 아니다, 금경(金經)이 아니면 방편(方便)이며 권문(權門)이다. 방편권문(方便權門)의 교(教)란다면 성불(成佛)의 직도(直道)가 아니고, 성불(成佛)의 직도(直道)가 아니면 다생광점(多生曠劫)의 수행(修行)을 거쳐도 성불(成佛)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생성불(一生成佛)은 이루기 어려우니라. 그러므로 묘호(妙法)라고 부르고 렌계(蓮華)라고 읽을 때에는 나의 일념(一念)을 가리켜서 묘호렌계교(妙法蓮華經)라고 이름한다고 깊이 신심(信心)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아무리 남묘호렌계교라고 불러도 법이 우리의 외부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묘법의 수행이 아니라고 가르치셨다. 그것은 추법이며, 추법이기에 때문에 금세에 성불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지금의 내 생명이 남묘호렌계교” 즉 “남묘호렌계교가 내 생명 그 자체” 그리고 “내 생명의 이름이 남묘호렌계교”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제목을 불러야 하며, 그것만이 우리가 일생성불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대성인은 또한 “기심의 밖에 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라는 구절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외부에서 해답을 구하는 가르침으로서의 불법을 말씀하시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부처와 보살을 숭배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경시한다면 그 사람은 부처와 보살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이는 즉 자신을 경시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강성한 신심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사실은 자신들의 생명이 묘호렌계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예가 바로 정토종이다. 정토종에서는 아미타불은 서방정토에 살고 있으며, 신심이 강성한 사람들을 사후에 정토로 데리고 간다고 가르치고 있다. 정토종에서는 부처란 우리의 생명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부처나 보살은 금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는 어떤 직접적인 관계도 없다고 가르친다.

절대적인 존재의 구원을 바라는 종교들은 보통 사람들과 동떨어진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그런 종교들에는 신이라는 절대적인 존재와 평범한 사람들 사이를 잇는 중간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성직자를 신에 가까운 존재로서 일반 신도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닛켄종 승려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차별적인 관점은 “기심의 밖에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기도 하다.

대성인께서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남묘호렌계교를 봉창하는 것은 일생성불을 위한 올바른 수행방법이 아니라고 명확히 말씀하시고 있다. 대성인이 전인류의 행복을 위한 사명을 자각하고 입종선언을 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쓰여진 이 편지에 이미 닛켄종 승려들의 주장에 대한 반증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초대 회장선생님에 의해 창시된 창기학회는 발족 이후 회원들 모두가 불법을 자신의 생명과, 개인의 성불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왔다. SGI 회원들이 불교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신심을 갖게 하고 제목을 불러왔기 때문에 세계 광선유포가 그만큼 큰 발전을 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닛켄종의 신도들은 오로지 승려의 권위에 집착하여 SGI가 말하는 신심의 관점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SGI의 올바름을 깨닫고 있는 일부 승려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중문 승려들은 종교의 권위를 남용해왔다.

일본의 봉건시대에는 영주의 보호를 받는 교구제도가 있어서 불교 승려들이 일반 대중에게 커다란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도가 일반 신도들을 승려들에게 복종하도록 만든 것이다. 닛켄종에서는 그러한 승려의 권위를 지금까지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법주였던 아베 닛켄은 승려 중심의 교리를 되살리기 위해 광선유포에 진력해 온 창기학회를 파괴하려 했다.

“C작전”이라고 알려진 법주의 이런 탐무니없는 시도는 중문이 방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중문은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본질적으로 타락시켰다. “기심(己心)의 밖에 법(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혀 묘법(妙法)이 아니라 추법(추법)이다.”라는 대성인의 말씀 그대로이다. 여기에서 “추법”이란 불완전하고 불성실한 가르침을 말한다. 바로 중문 승려들의 주장에 대한 대성인의 반증이 담긴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성직자를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성인은 이와 정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성불할 수 있다는 법화경의 핵심 원리를 바탕으로 종교의 성직자 중심적인 경향과 권위주의를 초월했다. 대성인 불법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성불할 수 있는 직도로 남묘호렌계교를 봉창하라고 가르치는 일종의 개혁적인 발상이었다.

이 어서에서 대성인은 니치렌 불법의 기본과 실천인 창제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고 있다. 기심의 밖에서 법을 구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형식과 권위주의에 빠진 타종교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기심의 밖에서 법을 구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종교를 평가하는 대성인의 본질적 기준이다. 만약 우리가 인간 내면이 아닌 외부에 법이 있다고 본다면 본인 혹은 다른 사람들을 경시하고 개인의 행복을 위한 투쟁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게 될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구원을 표방하는 종교는 성직자의 권위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종교활동의 기본이 되어버리기 쉽다. 대성인께서는 이 어서에서 그러한 경향에 대해 반박하시고 있다. 대성인 불법수행에서는 남묘호렌계교가 곧 자신의 생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목을 부른다. 자신에게 절대적 행복과 일생성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제목을 부르려고 노력한다.

또한 타인의 행복을 위한 수행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것은 창립초기부터 이어져 온 창가학회 회원들의 기본방침이다.

이케다 회장선생님은 이 구절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다. “대성인께서는 ‘내가 묘호렌계교다!’라고 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묘법은 민인의 고뇌를 제거하는 대양약입니다. 또 민인의 행복을 실현하는 커다란 보물 창고입니다. 그 묘법을 근본으로 하여 묘법을 위해 철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에 묘법을 확고히 굳히는 것입니다.” (어서의 세계 1권 127쪽)

“내가 남묘호렌계교다” 각자가 이렇게 결의해야 한다. 그러나 그 결의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묘법의 인생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것이 묘호렌계교를 가르치신 대성인의 마음인 것이다.

이 묘호렌계교의 묘법으로 자신의 참된 행복은 물론 많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복의 길로 이끌 수 있으며, 우리 나라와 전세계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대성인의 불법이며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묘호렌계교이다.

이케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묘법은 영원합니다. 또 만물의 근원입니다. 그 묘법과 일체인 생명을 각지하면 자신도 영원한 존재가 되고 무한한 힘이 솟아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에도 자유자재입니다. 그것이 성불의 경애입니다. 거기에 묘호렌계교라고 부르는 제목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서의 세계 1권 127-28쪽) 라고 말씀하셨다.

묘호렌계교는 우주 근원의 법이다. 모든 현상이 묘법이라는 바다 깊은 곳에서 생겨나고 다시 돌아가게 된다. 모든 것이 끝없이 흘러가는 상태이다. 모든 사물을 소생시키고 포함하는 묘법만이 영원하다.

불개는 우리의 생명과 행동에서 무한한 묘법의 힘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우리의 생명은 본래 묘법과 하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묘법과 하나가 되어 최대의 공덕을 받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묘호렌계교라는 가르침의 의의인 것이다.

렌개는 연꽃, 즉 긍정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묘법의 무한한 힘을 말한다. 이 힘을 통해 많은 공덕의 꽃이 우리 생명 속에서 피어나게 된다. “제법실상”의 가르침이 설명하듯, 모든 것들이 묘법의 당체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의심과 미혹의 어두운 구름이 생명을 덮고 있을 때는 묘법의 무한한 힘을 발휘해 낼 수 없다. 이것이 끝없이 반복되는 생사의 고뇌의 원인이다. 신심으로 미혹과 의심을 타파함으로써 생사의 고뇌를 멈추고 우리 생명을 묘호렌계교의 당체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룬 것이 석존이며, 우리의 목적 또한 이것이다. 우리는 묘호렌계교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인간으로 태어났다.

인간의 마음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만큼 월등하지만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만큼 커다란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 인간 마음의 유일한 목적이 고통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이 남묘호렌계교의 무한한 힘을 즐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고통을 인생의 묘미라고 받아들이며

묘법의 훌륭함을 맞볼 수가 있는 것이다.

진지하고 솔직한 신심이 가장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아무리 확신을 가지려 해도 어쩔 수 없이 속 좁은 자신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삶의 현실은 계속되는 고뇌의 연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이 묘호렌게교’라고 결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깨달음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용감하게 맞서 승리해 낼 수 있다.

묘호렌게교라는 확신이 있다면 절대로 도망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떠한 어려움에도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 있다. 확신과 신심으로 용기를 끄집어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승리하는 인생의 열쇠인 것이다.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떠한 역경에도 도전해 낼 수 있는 용기를 끄집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떠한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도전해 나가야 한다. 무한한 확신을 열어내야 한다. 그 힘이 바로 묘호렌게교이다.

반대로 자신의 역경을 두려워하고 불평한다면 “기심의 밖에 법이 있다”고 믿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대성인께서는 “니치렌의 제자들은 겁쟁이로서는 할 수 없느니라. (아서 1282쪽)”라고 말씀하시며, “사자의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도 강조하시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심 근본의 용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미혹의 구름이 걷히면 태양이 온 세상을 환히 비춘다. 마찬가지로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에 도전해 나갈 때 생명 속에 내재한 불성이 용현되는 것이다.

남묘호렌게교야말로 용기 있는 신심을 통해 용현되는 불계의 생명이다. 신심 또는 확신이 ‘안, 불계의 생명’이 ‘과’ 이것이 바로 하나의 인과이다. 불계의 인과가 바로 남묘호렌게교이다.

대성인께서는 “묘호렌게교(妙法蓮華經)라고 이름한다고 깊이 신심(信心)을 일으켜야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그러한 용기와 신심으로 제목을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성인께서 가르치신 묘호렌게교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생명의 본질

“통틀어서 일대팔만(一代八萬)의 성교(聖敎), 삼세사방(三世十方)의 재불보살(諸佛菩薩)도 나의 마음 밖에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불교(佛敎)를 배우다고 할지라도 심성(心性)을 관하지 않는다면 결코 생사(生死)를 출리할 수 없느니라. 만약 심외(心外)에 도(道)를 구하여 만행만선(萬行萬善)을 수행함은 비유컨대 반궁한 사람이 일야(日夜)로 이웃의 재보를 훔치려도 반전의 득분도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천태의 석중(釋尊)에는 만약 마음을 관하지 않는다면 중죄는 멸하지 않는다고 하고, 만약 마음을 관하지 않는다면 무량의 고행(苦行)으로 된다고 판정했느니라. 고로 이와 같은 사람을 불법(佛敎)을 배우고 외도(外道)로 된다고 창피를 주었느니라. 이로써 지관(止觀)에는 수학불교(數學佛敎), 환동외견(還同外見)이라 해석했느니라.”

대성인께서는 이 구절에서 기심의 밖에서 불법을 구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있다. 그렇게 되면 만행만선을 수행하더라도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마치 이웃의 재보를 세는 것처럼 헛된 일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되고 만다.

그래서 대성인께서는 자신의 생명에서 묘호렌게교라는 근본 법을 구함으로써 “마음을 관해야” 한다고 역설하시고 있는 것이다.

기심의 밖에서 법을 구한다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부정적인 숙업은 전혀 바뀌지 않고 모든 것이 더 큰 고통의 원인이 되어버린다.

불법이 타인이나 외부의 상황에만 적용된다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천국이나 다른 세상 여단가에 훌륭한 부처나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관점야말로 기심의 밖에서 법을 구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법화경에서는 묘법은 우리 생명 안에서 나타나며 부처와 불국토도 다른 먼 곳이 아닌 바로 자신 속에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은 남묘호렌게교를 부르는 수행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불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법화경의 7대 비유 중 하나인 “의리계주의 비유”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가난한 사람이 친구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친구는 멀리 출장을 가야 할 상황이었기에, 가난한 친구를 위해 매우 소중한 보주를 친구의 옷에 꿰매어 놓고 떠났으나, 가난한 남자는 친구의 배려를 알지 못한 채 가난에 시달리며 떠돌게 된다.

자신의 옷 속에 귀중한 보주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행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생명 속에 존재하는 무한한 보답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채 일생을 허비하는 인간의 불행을 상징하는 우화이다. 대성인께서는 이것을 “만약 심외(心外)에 도(道)를 구하여 만행만선(萬行萬善)을 수행함은……”이라는 구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속에 존재하는 법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제목을 부르면 법은 우리 안에 존재한다. 어려움을 만나면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만이 묘호렌게교의 힘을 사용하여 스스로 만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 SGI의 회원들은 이러한 관점을 근간으로 대성인께서 가르친 그대로 불법을 신수하면서 제목의 무한한 공덕을 받아왔다.

SGI에서 배운 대로 신심을 수행하는 한 어떤 노력도 결코 헛됨이 없다. 대성인께서 “겉쟁이의 기원은 이루어지지 않느니라”라고 말씀하셨듯, 가족 친구들에게 불법을 알려나가면서 제목을 부르고 불도수행의 공덕을 민감하게 위해 용감하게 도전하는 우리들에게 인생이 결코 “무량의 고행”으로 될 리가 없다.

대화와 사색을 위한 주제

1. 자신의 불행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하는 것은 남묘호렌게교가 기심의 밖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경향을 타파할 수 있을까요? 남묘호렌게교가 자신의 생명 그 자체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 노력하면서 올바른 신심을 지속하는데 교학이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2. “중생본유의 묘라”를 관하기 위해서는 원품의 무명과 싸워야 합니다. “투쟁하는 제목”과 강성한 신심으로 도전하여 결과를 낸 체험이 있다면 서로 공유해 봅시다.

대성인께서는 또한 우리가 기심의 밖에서 법을 구한다면 “무량의 고행”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불도수행이 타불교에서 가르치는 수행과 전혀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이는 현재 종문의 신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문도 어본존을 모시고 똑같은 남묘호렌게교를 부르고 있지만 그들이 수행하는 것은 승려에게 의존하는 신심이다. 승려들에게 추선공양을 부탁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종문이다. 이는 기심의 밖에서 법을 구하는 타종교의 수행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이 바로 대성인께서 천태의 마하지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수학불교(毘學佛敎), 환동외견(還同外見)”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환동외견”이란 겉으로는 불법을 신수하는 듯 하지만 불법 이외의 관점을 견지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대성인께서는 우리들 각자가 대성인의 훈계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기심의 밖에서 불법을 구하지 말고 거듭 경고하시고 있다.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서 도망쳐 외부의 구원을 인고자 한다면 우리의 수행은 타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

대성인께서 “투쟁하는 제묵”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있음에도 우리는 가끔 불평의 제묵을 부를 때가 있다. 하지만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제묵을 부르면 공덕은 없다. 언제나 반드시 공덕을 받아간다는 확신에 가득 찬 제묵을 불러나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대성인께서 가르치신 “투쟁하는 제묵”인 것이다.